

[2019-3-10] 주일 말씀 녹취록

제목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설교 : 조상용 목사

본문 : 마태복음 5:1-6

1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3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4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도 같이 RU 참석하러 오셨고 최종욱 목사님은 좀 더 오래 계신다고 내가 알아서 당연히 예배 인도는 설교를 최종환 목사님 같은 분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강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해서 다른 분들이 계시는데 왜 내가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아 여기 오래 계실 분은 다음에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어찌 됐든 제가 아는 우리 강목사님은 그릇이 커가지고 여기 교회 다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릇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커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 받는 일도 그릇이 커야 되거든요 그래야 감당을 하니까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잠시 증거 하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거기 안에서 우리가 읽은 부분은 8보 중에서 네번째보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맨 먼저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죠 그리고 맨 먼저 무리들과 제자들 앞에서 설교 하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 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결론이 바로 7장 28절, 29절이에요. 28절, 29절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여 집니다 한번 볼까요 7장 28절, 29절 같이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지금까지는 수백년동안 서기관들이나, 바리세인들이나 제사장들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제대로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배워 왔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율법 교사들 이거든요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또 모세가 직접 글로 쓰지 않는 구전 있잖아요 구전 입으로 전해지는 그것까지 합쳐서 만들었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 조목조목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인제 탈무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보다 그대로 구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다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침은 그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그리고 그 산위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듣고 청중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그 가르치심은 권세있는 새 교훈이고 지나번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권위가 있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저희 서기관 그들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런 결론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그 앞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죄있는 사람은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집을 질때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면은 그리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는데 죄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은 그 집의 기초를 모래 위에 세움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죄있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얘기 하거든요 요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굉장히 많이 거기에 집착하고 가르치는 것이 옳이나면 거의 답니다. 신앙생활은 정말로 행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네 행위를 보여라 특히 구원파 쪽에서는 네가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다 언제 받았냐 내가 믿을 때 받았다 언제 다들 그 날짜가 언제냐 이렇게 질러 대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구원 받았으면 죄짓냐 안짓냐 죄 짓는데 하나님 뜻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그럼 말문이 막히거든요 보라 너는 구원 제대로 못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구원받으면 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몇 월 몇 일 거기에 네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 정도 되야 네가 구원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몰아 붙이는데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꿈쩍 못하고 당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되냐? 하나님의 뜻 그러면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아니냐 하나님의 뜻 아니다 너 죄 짓냐 안 짓냐? 그러면 안 되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결론을 보면은 그 말씀 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요말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요겁니다 저희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않다. 그러면은 문제는 요거예요 누구 가르침을 받느냐가 먼저야 너희가 지금 누구 가르침을 받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냐 서기관들의 말씀을 듣냐 고것이 문젠데 그 뜻대로 행하고 안하고를 먼저 뒤 버리니까 그게 굉장한 문제가 야기되고 신앙의 갈등이 거기서부터 생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라 이 말이죠 복음이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복음을 들으면은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행함이 되요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진실하고 착하고 선하고 요것이 기준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기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보다 우리보다 우리는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을 확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훨씬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 여기 많다는 얘기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위해 믿지도 않고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도 응답 받아도 구원 받고 난 다음에도 착하고 진실하고 선해서 구원 받았고 그리고 착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응답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그래 버리면은 우리 축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지요 정말로 나는 늘 무너지고 나는 죄 걸려서 살지 만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긍휼을 앞세우면서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속, 그 은총,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러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도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1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5장 1절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무리, 제자 요렇게 두 단어가 나옵니다 무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포커스를 맞추고 계셔요 왜 그러냐니까 제자들이 세워지면은 무리들이 모두 다 많은 무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죠 나병환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눈 뜨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의 역사 이런 많은 기적을 무리들에게 보여 주셨어요 그것은 단 한가지 목적이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아하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환호하고 예수님을 추앙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다들 세계의 주역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조용히 나가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다른 교훈을 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요런 말씀을 제자들에게는 주셔요 그리고 사람은 죽일 수 있지만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영원까지 죽일 수 없는 자들에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죽이시는 심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요런 쪽에서

제자들의 각오를 심어줍니다 비유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 듣지 못 했을 때 제자들에게는 또 다르게 조용히 비유의 뜻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리와 제자들이 같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데요 8복에서 마찬가지로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한번 보세요 무리들을 딱 생각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저희 상이 큼이라 이런 말씀으로 계속 하거든요 무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심령이 일단 가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여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되려면 어떡냐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요 정말로 온유한 사람 있잖아요 정말 이런 사람 이 안에 이 깡아리가 없고 말이에요, 질러 나가는 사나움이 없고 정말로 온유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의에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의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빨리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화평케 하고 사람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심령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요 이런 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제자들의 많은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긴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긴데 하나님을 만날려면 일단 고과정부터 필요하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내게는 하나도 없다 그것을 발견한 것이 심령이 가난이예요 세관들이 가르치는 것은 심령의 가난이든 그냥 육신의 가난이든 가난은 정말로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사람을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들은 어찌됐든 가난은 저줍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는 그렇게 바로 심령이 가난이라고 아니하고 그냥 가난한 자 너희 가난한 자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어느 정도냐 그 생각이 나중에 한참 예수님이 한 2년 가까이 있을 때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는데 소경이고, 길에 거지로 앉아 있는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한 질문이 고겁니다 저렇게 가난하고, 저주받고, 재앙받았는데 저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들 죄 때문입니까? 요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을 봐도 이 죄라는 게 가난이 바로 등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난은 죄다. 예수님께 어떤 부자 청년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게 되겠습니까? 선한 선생님.’ 이렇게 질문에 해 왔는데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우리가 가르친 대로 다 지켜 서기관들이 가르친 대로 다 지켰습니다 그래 오히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네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마다 그렇습니다 어떤 성경은 근심하여 갔다.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여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고 부분도 그 청년은 무슨 생각을 먼저 갖았느냐 내가 가난하고 다른 사람들 다 나눠 주고 없어지면 내가 가난한거 아니야 가난은 바로 죄인 취급 아니냐 죄인 아니냐? 요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때부터는 가난하면은 죄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배워왔고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 갈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 가난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로 내가 구원 받아야 되는데 구원 받을 수 있는 이 조건 공로는 내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죄문제에서 해결 받아야 되는데 원죄, 자범죄라고 어마어마한 이 죄예요. 바뀌져가며 생각하는 것은 모든 의도하는 것이 다 알고 보니까 모든 죄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죄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도저히 길이 없다 이 죄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늘 악한 영들이 이 죄를 붙잡고 너무 나를 붙잡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내게는 전혀 없다 그래서 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여러분 12가지 흐름 그것을 보면은 그것이 나와야 되지요 머리로 나는 사단과 원죄와 모든 자범죄와 모든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 없는 불신앙으로 가득 찼다 그것을 아는 거죠 머리로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가슴에 정말로 아파합니다 가슴에 괴로움과 슬픔이 가득 차져요 애통하는 거지요 애통 그리고 이 길에서 이 인생길에서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착하고 진실해도 나는 지옥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돌아서야 돼 돌아서야 돼.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절망 하니까 어떻게 나오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복음 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구나 머리로 그래 모든 사단을 깨뜨리고 왕이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참선지자요 이걸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 그 분을 모시고 이렇게 됐으니까 구원 얻은 기쁨이 가슴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만 따라 가는 거야 나의 의지로요 오직 예수만 이것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자가 천국을 소유 했어요 자 여러분 천국 소요 했지요? 다 구원 받으셨죠? 그렇다면 이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전도자요 존 스타트 모사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 하지 않는 죄 라는 책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나 전도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다 전도 대상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 예수님 포인트를 맞추잖아요 제자들은 뭐 하려고요 결국은 모든 민족 땅끝 세계 가서 구속의 이 놀라운 역사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하고 세상을 만민을 구원 하려고 하는 고일 때문에 제자를 부르셨거든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됐으면은 이젠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이 세상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절대 불가능한 구원을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 놀라운 구원의 주님이 내 옆에 계셨던데 나는 그동안의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살았고 고통 속에 살았는데 요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 믿기만 하는 이 구원을 사람들이 있으면 옆에 있으면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 애통 하는 거예요. 그게 애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 전도자의 애통, 제자의 애통이에요. 물론 그러지요 내가 구원 받았지만은 내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죄의 성이 로마서 7장에 바울이 하는 것처럼 아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는 고 마음을 늘 가지면서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 받는데 우리 애들은 어떡냐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났나요 거기에 대한 애통이에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이 놀라운 축복이 너무나 어마어마 한데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 이 비밀이 엄청나게 높이고 깊이가 무한한데 요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하고 어떻게 도와 줄 것인가 마음을 갖는거예요 세상에 죽어가는 똑똑하다고 하는 정치 하는 사람들 그 사업하는 못 사람들 성공했다고 의시대는 사람들 영혼을 보면서 애통해 하며 불쌍한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청소년들 죽어가는 영혼들 마약에 홀려 들어가서 거기에 사단에 완전히 붙잡혀 포로된 상태를 딱 보고 보고 있으면 애통하는 거예요. 아이고 애통하구나 그 애통한 사람이 뭐 한다고요 위로를 받는다 우리가 나가서 바쁘신 분들이 뭐 나가서 전도 하라고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마음 속에 주님이 주님께 기도하고 정말로 그 마음을 내가 주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구원의 놀라운 축복 이 은혜를 다른 사람께 알게 하는 그 목적인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고 천국이 이렇게 세력이 얻을 것인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데 나는 바쁘기도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주셨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될 것이다 요 얘기를 하신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는 그 자리에서 문들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내가 상황에 너무나 바빠서 복음을 전하러 현장에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 요것을 복음을 전하라 니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줘라 하는 고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합니다 주님이 마음 열어 주시고 주님이 저 현장 열어 주시고 주님이 저 가게 그냥 열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이 자리에 이 마음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요게 큰 전도 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결국 온유하게 되지요 온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벌써 고속에 들어갔거든요 주님의 명령 속에 들어 갔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안하는 것 갔더니 24시 25시 했잖아요 고 생각이 늘 떠나지 않는 것이 24시잖아요 고 중심으로 기도하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성령의 길들임을 받은 거예요. 복음에 길들여진 사람이요.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예요. 세상에 성질 착하고 정말로 온유하고 말이에요 진짜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 있잖아요 주님은 그 사람을 애기하는게 아니예요 그 사람도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복덕이 나겠조 주님이 제자들을 포커스를 맞출 때는 그런 온유가 아닙니다 그 온유는 주님께 길들여진 사람 성령에 길들여진 사람 주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강단에 길들여지고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응답을 거기서 찾는 사람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말씀에 길들여지고 해보세요 말씀에 길들여지고 성령에 길들여지고 복음에 길들여지고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예요. 이 사람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겁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길들여지면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그랬거든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다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요 다른 거 다 체험 받는 사람 배부르게 되는 사람이 거기에요. 이제는 세상에 의로운 사람 있잖아요 불의를 참지 못하고 정말로 이게 내가 손해를 봐도 말이에요 같이 대변하고 외쳐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는 그런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거기에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의를 찾도록 하나님이 의로 여기심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현장에 굶주린 사람이예요. 전도 현장에 굶주린 사람이예요. 영혼 구원에 굶주린 사람이예요. 후대 우리 램턴트들을 정말로 살리기 위해서 굶주려 있는 사람이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굶주려 있는 사람이예요. 배고프고 목말라 하고 굶주려 있는 사람이예요. 굶주리면은 어떻게 되지요? 찾게 되잖아요 하지 마라 해도 찾게 되는 것이 굶주린 것이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렵고 이렇게 살아도 할 수 있는 현장이 있잖아요 굶주려 있으면 기도와 기도가 안 나올 수 없조 하나님 나의 현장을 알고 보니까 교회가 나의 현장이요 또 내 도움이 필요한데가 얼마나 많은데 교회안에 조용히 해라 내가 도와줄께 그런 식으로 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말없이 안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제자들 현장에 굶주려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우물가의 여인 다 알잖아 여러분 그 여자에게 전도를 하고 그 여자가 이제 동네에 보라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 전도하러 가는 동안에 제자들이 점심꺼리를 가지고 마련 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드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동안에 누가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성 현장을 보여 주면서 보라 추수할 때가 됐다 모든 것이 준비 되어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추수 할 현장 그 사마리아에 영혼 구원 하는 걸 예수님은 음식으로 삼았다 이것이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배부른 겁니다 영혼구원을 그 현장에 있으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전부 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할 때 아 정말로 살맛이 나네 배부른 인생이 배부른 삶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서요 단 한가지 잼아요 그때 딱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뭘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부름을 받은 자로서 전도가가 걸어야 될 그것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뭘 찾으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 구원 주기로 작성된 영혼이 내가 지금 사는 동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만나는게 현장이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작성된 영혼이 누구입니까? 요걸 찾는 겁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찾아질 것이요 그러잖아요.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뭘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사역할 수 있는 현장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하는데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거기를 그 현장을 찾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 현장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열려 질 것이다 구하는 일마다 또 다시 하잖아요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다 요런 마음에 기도가 우리 전도자의 기도요 제자의 기도입니다 여기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돈 많고 무엇인가 마음의 안식을 얻고 그리고 새 힘을 얻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다른 힘. 돈의 힘이 아니고 인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힘을 얻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도 그러고 여러분 통해서도 그렇고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면은 뭐 현장도 얼마든지 뭐 시간이 낭비되는 거 아니잖아요 눈뜨고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갖다 드리고 한번 그것을 체험 하면은 거기서부터 하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진짜예요 거기서부터 하나가 풀리기 시작하면 줄줄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내 삶도 같이 풀려요 어떨때는요 내가 몸이 불편한 것이 그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내가 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빨리 나를 구원 받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미국까지 와서 그래서 그 삶의 찌들려 정말로 눌러 있으니 말고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러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로 믿으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사실 실제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말 만이 아니예요. 안 그렇습니까 노트에 하나님 함께 하신 메시지 많잖아요 덮어 놓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서 꺼내 와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 사실이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도 탓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사실인데. '환경' 고거 내가 눌러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데. 하나님보다 내게는 환경이 더 힘이 세다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돈이 없다 위축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거 요 과정이다 이렇게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사실이 안되니까 그냥 돈이 하나님보다 힘이 세고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나한테는. 그래 가지고 내가 환경에 지고 돈에 지고 여러가지 상황에 지고 문제에 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무슨 문제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거기에 대해 증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 복임이요.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작업이 시작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